

현대적 추의 관점에서 살펴본 패션 필름 -SHOWstudio의 작품을 중심으로-

홍준영 · 이지선 · 전재훈*†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서울대학교 의류학과/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Fashion Films From the Modern Ugliness perspective -Case of SHOWstudio's Works-

Junyoung Hong · Jisun Lee · Jaehoon Chun*†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Textiles, Merchandising and Fashion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October 18, 2022; Revised November 29, 2022; Accepted December 19, 2022

Abstract

Although ugliness had long been considered a negative form of beauty, it has become an independent aesthetic category. However, most previous art studies have focused on Rosenkranz's theory, making its application to contemporary fashion analysis challeng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define ugliness. This study highlighted four modern ugliness categories from a modern perspective following the 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considerations of the ugliness concept, namely ugliness as a violation of taboo, ugliness as an unpleasant emotion, ugliness as a vulgar taste, and ugliness as an ethical flaw. From this perspective, SHOWstudios for fashion films were analyzed in the present study.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howed that ugliness in the film was related to socially sensitive subjects and stimulating images. Whereas costumes in the film were used as a tool to convey the subject and to enhance the visual effect of the image. In addition, clothing was identified as a core subject element of the video, particularly when considering ugliness as an ethical defect. This study provides further insights into contemporary fashion analysis, expanding the ugliness perspective, which had been limited to the specific perspectives of scholars.

Key words: Ugliness, Aesthetics, Dress, Fashion film, SHOWstudio; 추, 미학, 복식, 패션 필름, 쇼스튜디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오늘날 관람자들은 고전적 미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실험적인 작품을 보고 경악하기보다는 다양한 미적 체험을 통한 의미를 획득한다. 이처럼 ‘추

(醜)’가 미(美)의 반대가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 자리 잡은 것은 미학의 역사상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최초로 추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로젠크란츠(Rosenkranz)도 추는 이상적인 미를 위해 종합되는 변증법적 총체성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Rosenkranz, 1853/2008). 하지만, 슐레겔(Schlegel)은 이미 19세기에 예술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로, ‘흥미로움’을 목표로 하는 예술은 추한 것들을 작품 속에 표현할 수 있다는 현대적 입장을 제시하였다(Kim, 2003). 이후 아도

†Corresponding author

E-mail: kingkem2@snu.ac.kr

르노(Adorno)에 이르러 추는 비로소 미의 부산물이 아닌, 수많은 특질을 가진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 등장할 수 있었다(Kim, 2003). 최근 들어서, 손택(Sontag)을 통해 ‘캠프(camp)’라는 지극히 현대적인 미적 감수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가레스 퓨(Gareth Pugh)나 릭 오웬스(Rick Owens) 등 현대 패션 브랜드들의 실험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통해 ‘이상적인 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컬렉션도 나타나고 있어 보다 최근의 현대적 관점에서의 미적 범주로서의 ‘추’에 대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로젠크란츠의 추의 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서 나타나는 추의 미학에 관해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로젠크란츠의 세 가지 추의 분류 기준으로 컬렉션의 조형성을 분석한 연구(Ahn & Yang, 1995; Lee & Lee, 2020; Yoon, 2013), 컬렉션의 메이크업을 분석한 연구(Choi, 2004; Sun, 2007), 캐릭터의 패션에 표현된 추를 고찰한 연구(Hwang et al., 2013; Seo & Jin, 2006)가 있다. 또, 아도르노의 추의 속성으로 현대 미술과 패션에서 나타난 추의 특징을 분석한 연구(Park & Bae, 2012), 아도르노와 에코(Eco)가 분류한 추의 유형을 결합한 이론적 틀을 통해 추의 내적 의미를 고찰한 연구(Lee, 2010) 등이 있다. 이를 통해, 현대 패션에서 추를 다룬 선행연구들의 주된 논의는 조형성 분석에 치중해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로젠크란츠의 추 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로젠크란츠의 물형식, 부정확성, 형태의 왜곡이라는 추의 특성은 작품의 외관을 묘사하는데 적합한 추의 분류법이다. 그러나 그는 추를 미에 종속된 대상이 아닌 하나의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 바라보는, 보다 넓은 범주로서의 미적인 가치를 간과하였다. 사실 추는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미에 반하는 개념으로 여겨졌고, 이 과정에서 추는 오랜 기간 미의 배후에서 독자적인 미적 가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즉, 추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심미적 확장성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이론적 개념으로 사용된 로젠크란츠의 이론을 최근의 현대 패션 분석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학자의 추에 대한 견해가 아닌,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추 개념의 변천 과정과 20세기 이후 미학과 정신분석학에서 논의된 추의 속성들까지 모두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현대적 추의 관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 패션에서 중요

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미디어인 패션 필름 분야에서, 다양한 미적 가능성을 구현해 내는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적 추의 관점에 따라 패션 필름 속에 나타난 복식의 역할에의 차이를 밝힐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특정 학자의 미적 시각이라는 추에 관한 한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서 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논의할 수 있었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연구를 병행하였다. 첫째, 문헌 연구로는 철학, 미학, 예술 분야에서 추를 다룬 서적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추가 발전한 과정과 20세기 이후 미학과 정신분석학에서의 추에 대한 논의를 함께 종합하여 현대적 관점에서 추를 논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확립하였다. 둘째, 사례 연구를 위해 패션 미디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패션 필름의 정의와 유형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여, 현대 패션 필름의 선구자인 나이트(Knight)가 운영하는 SHOWstudio의 패션 필름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SHOWstudio의 공식 홈페이지에 제시된 에세이, 인터뷰 등의 자료를 통해 SHOWstudio의 주요 프로젝트를 살펴보았다. 이후 SHOWstudio의 설립 시점인 2000년부터 2021년까지 SHOWstudio 웹사이트에서 ‘fashion film’이란 태그를 달고 있는 914개의 패션 필름을 조사하였다. 이들 중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추의 관점에 부합하는 이미지 혹은 주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 145개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사례 분석에 있어서 SHOWstudio의 인터뷰 자료와 관련 전문가들의 에세이를 통해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였으며, 온라인 패션 매거진 사이트의 자료를 통해서도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분석에 활용된 145개의 작품들 중 각 현대적 추의 관점과 가장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II. 이론적 배경

1. 패션 필름과 SHOWstudio

1) 패션 필름의 등장 배경과 정의

패션쇼의 형태가 변화하고 브랜드 경험에 대한 중

요성이 높아지면서, 패션 브랜드는 기존의 미디어에서 벗어나 새로운 매체를 모색하게 되었다(Lee, 2015). 이에 따라 전통적 패션 미디어에서는 표현하기 힘들었던 이미지를 입체적이고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패션 필름이 등장하였다(J. Kim, 2013). 이처럼 패션 필름은 기존의 패션 미디어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재현 매체로 독창적인 미학적 가치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접근가능하고 상호 작용적인 매체로 인식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Khan, 2012).

패션 필름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Geczy and Karaminas(2016)는 동시대의 패션을 보여주기 위한 움직이는 이미지 플랫폼으로서 패션 필름을 정의하였다. 또한, Díaz Soloaga and García Guerrero(2016)는 패션 필름을 패션 브랜드가 제작하는 창의적인 시청각 프로젝트라고 설명하며 브랜드 웹사이트는 물론 패션 쇼, 갤러리, 리테일샵 등 광범위한 공간에서 재생되는 시즌별 컬렉션 홍보 비디오, 전자 룩북, 상업 광고, 비디오 클립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Kwon and Yim(2016)은 패션 필름을 패션을 주제로 다루는 영상물로서, 패션 브랜드의 재정으로 제작된 영상 전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했으며, Kim and Kim (2013)은 패션 필름을 특정 브랜드가 콘셉트 및 정체성 표현을 위해 제작한 10분 내외 길이의 영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Huh et al.(2016)은 패션 브랜드 혹은 디자이너가 소비자에게 브랜드를 홍보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온라인에 업로드된 디지털 영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패션 필름은 의상, 액세서리 등과 같은 패션 소재를 움직이는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는 미디어로, 제작자의 메시지가 담긴 패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서 상업적인 목적과 예술적인 표현 가치가 어우러진 복합적 성격의 장르로 정의할 수 있다.

2) 나이트와 SHOWstudio

패션 필름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패션, 영화, 영상과의 상호 작용으로 발전해 왔지만, 패션 필름이 하나의 예술 장르로 현대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나이트가 SHOWstudio라는 패션 필름 전문 웹사이트를 개설한 2000년대 이후이다(Bartlett et al., 2013). SHOWstudio는 다양한 장르의 패션 영상과 인터넷을 통한 생방송, 퍼포먼스,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독창적인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혁신적인 패션 이미

지를 만들어왔다(J. Kim, 2013). 나이트는 전위적인 디자이너의 브랜드에 내재한 미학 외에 패션 필름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담아내기도 하고, 전세계의 신진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한 패션 필름을 제작하기도 했다(Kissick, 2015). SHOWstudio 패션 필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선진적 도입을 들 수 있다(J. Y. Kim, 2013). 나이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것을 이미지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여 페인트박스, 포토샵, 사이텍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영상물을 제작하였다. 그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에서 탈피하여 주변화된 미적 현상들을 다루고 있다(J. Y. Kim, 2013). 또한, 미적 표현에 있어서 정형화된 표현을 거부하고, 각 브랜드가 추구하는 미학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패션과 예술의 경계를 허무는 작업을 해왔다.

2. 추 개념의 사적 고찰

추는 ‘추하다’의 어근으로, ‘옷차림이나 언행 따위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 ‘외모 따위가 못생겨서 흉하게 보이는 것’으로 정의된다(“추하다[Ugly]”, n.d.). 이에 대한 유의어로 ‘추잡하다’, ‘지저분하다’, ‘밉다’, ‘천하다’, ‘추악하다’ 등이 있는데, 추라는 개념이 단순히 조형적 형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간의 불쾌한 감정과 관련한 문제, 선과 악의 윤리적 문제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고대 시기부터 추의 반대 개념인 ‘미’는 감각적 판단에 의존한 아름다움보다는 진리와 선의 문제와 결부되어 나타났다(Kim, 2008). 이처럼 추의 범주에 들어가는 현상들은 미의 특성을 나열하는 것만큼 매우 다양하고 개개인에 따라 추하다고 생각하는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추를 정확히 규정하기란 쉽지 않다(Yoon,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대부터 근대까지 철학, 미학, 예술에서 등장한 추에 관한 이론을 고찰하고, 20세기 이후 미학과 정신분석학에서 논의된 추의 개념들을 중심으로 추의 현대적 관점을 살펴본다.

1) 20세기 이전의 추에 대한 논의

(1) 고대 및 중세

고대는 적합한 비례에 따라 미와 추가 결정되는, 형식적인 미가 지배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Oh, 2003). 미의 반대 개념인 추는 비례에서 벗어난 것, 형식을 이탈

한 것 등을 의미하는 등(Lee, 2012) 고대 그리스는 본질적이고 불변적인 미의 세계와 비본질적이고 우연적인 추의 세계가 엄격하게 구분되었다(Kwon, 2012). 또한, 미적 판단과 도덕적 가치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플라톤(Plato)은 추가 사악한 성품과 같아서 악을 만들고, 미는 선하고 분별 있는 것으로 이해하며(Han, 2010), 예술 속의 추를 부정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다(Ohr, 2015).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도 추가 미의 부정형임을 인지했지만, 카타르시스와 웃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에 추가 지닌 나름의 미적 가능성을 인정했다(Cho, 2015). 고대 그리스 신화의 내용에는 신적인 아름답고 선한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악함과 추함이 모두 드러내어, 선하고 미적인 존재조차도 언제나 추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Roh, 2015). 또한, 스팅크스와 미노타우로스처럼 자연적 형태를 거스르는 잡종 형상의 괴물도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추하게 생긴 살아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죽은 조각상보다 더 미적이다’라는 플로티노스(Plotinos)의 말에서, 생명이 없는 죽음은 추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Tatar-kiewicz, 1970/2005).

중세의 추는 미가 인간에 의해 손상되어 신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영역이므로, 독자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미의 배경으로서 부차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퀴나스(Aquinas)는 악의 문제와 관련하여 추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악의 근본적 원인은 신이 아닌 인간의 죄악이라고 보았다(Siniscalchi, 2015). 그는 미의 조건으로 완전성, 명료성, 비례 이외에 ‘적절성’을 들었는데(Chin, 2003), 모든 사물은 창조적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모양을 제대로 갖추어 아름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권위에 반항하듯 중세의 문학과 문헌에서는 악마적인 형상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중세의 추에 대한 논의에서 죽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세 초기의 죽음은 한 생명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곁으로 돌아가는 엄숙한 주제였다(Ariès, 1985/2004). 하지만 중세 후기의 사람들은 시체의 현실적인 모습을 겪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이상적인 관념 대신 역겹고 혐오적인 죽음인 마카브르(marcabre)에 관심을 가졌다(Chin, 2008). 여기서도 추한 것(시체)과 악한 것(죄인)이 연관되어 중세에도 추는 여전히 윤리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죽음과 관련한 또 하나의 주제는 ‘죽음의 무

도’라 불리는 예술 형태로, 춤을 추고 있는 죽음을 표현한 그림을 가리킨다(Ahn, 2005). 이는 인간은 누구나 항상 죽음을 곁에 두고 준비하라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암시한다(Forcén & Forcén, 2016). 이처럼 마카브르와 메멘토 모리를 통해 중세 후기의 사람들은 죽음을 고귀하고 경건하게 생각했던 중세 초기의 미화된 죽음 대신, 역겹고 추하며 공포스럽게 표현된 시체로서의 죽음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2) 근대

근대는 추가 심미적 현대성을 획득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 17세기 예술가들은 고전적 미의 이상 시대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독창성이 없는 고전주의적 모방 미학에 매너리즘을 느끼기 시작했다. 이는 추함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이어졌고, 강한 표현성을 지니고 경이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추에 대한 새로운 취향이 성장할 수 있었다(Eco, 2007/2008). 즉, 추한 것은 악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표현적인 측면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고, 미와 선의 관계는 느슨해지기 시작했다(Shin, 2001). 이 시기 등장한 ‘캐리커처’는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을 우스꽝스럽게 과장하여 풍자한 글이나 그림의 표현법으로서 익살, 유머, 풍자의 효과를 노린 예술 장르였다(Kim, 2021). 근대의 추를 논함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은 새로운 미적 범주로 나타난 ‘숭고’이다. 숭고는 공포 혹은 그와 유사한 감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대상, 그 대상과 관련한 모든 것을 포괄한다(Burke, 1757/2006). 여기서 공포나 그와 비슷한 감정은 추한 감정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추의 현상들은 숭고라는 새로운 미적 현상 안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추가 고통과 공포스러운 불쾌감을 형성할지라도 숭고안의 추는 예술의 표현과 예술적 경험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Cho, 2011).

바로크 시대를 겪으면서 미와 추가 선과 악의 문제로부터 어느 정도 분리된 것은 사실이지만, 18세기 이전까지 예술은 미를 형상화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교훈을 내포해야 하고 진리를 전달해야 했다. 하지만, 실러(Schiller)와 슐레겔에 의해 예술은 자율성을 획득하고, ‘즐거운 전율’, ‘격정적인 감정’이 추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정들로 여겨지면서 추는 심미적 범주로 자리잡게 되었다(Choi, 2014). 실러는 예술 속 추의 현상 중 천박함과 비천함에 대한 형상화를 부인하지 않았다(Ki, 2008). 즉, 실러의 추는 예술에서 심미적인 가

치를 지닐 뿐, 도덕이나 진리와는 연관을 지니지 않는다. 유사하게 슬레겔도 동시대 미학자들의 견해와 다르게 당시 예술의 기본적 특성을 오히려 단편적이고 불협화음을 내는 추로 설명했다(Lee, 2019). 그는 당시의 ‘아름답지 않은’ 심미적 자질을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Park, 2017). 그는 현대(modern)의 예술이 지닌 추의 심미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보였으며, 예술이 ‘아름다운-추한’의 관점이 아닌 ‘흥미로운-지루한’의 관점으로 소통되어야 함을 지시했다(Rhie, 2017). 그는 예술이 ‘추’라는 칼을 가지고 으페된 삶과 현실의 부분들을 파헤쳐 삶과 현실의 참모습을 드러낼 수 있음을 주장했다(Kim, 2003). 19세기 중반, 로젠크란츠는 추를 미에서 출발하여 골계로 완성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였다(Ahn & Yang, 1995). 그의 논리에 따르면 추는 미와 분리될 수 없고, 미가 존재하지 않으면 추 또한 존재할 수 없게 되는데, 그는 이러한 추를 ‘물형식’, ‘부정확성’, 그리고 ‘형태의 파괴 혹은 기형’으로 구분했다(Rosenkranz, 1853/2008). 또, 그는 캐리커처 개념을 제시했는데, 원본이 지닌 고귀한 원본성을 뒤돌고 해체함으로써 이상적인 면을 파괴하고 무게감을 상실하며 우스꽝스러워지는 것을 의미한다(Jeong, 2010). 로젠크란츠에 의해 추는 미적 논의의 대상으로 자리 매김하였지만, 여전히 추는 독자적인 의미 지평을 가지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의 공으로, 추는 20세기 이후 현대까지 미학과 정신분석학의 담론 속에서 하나의 미적 범주로서 논의되었고 마침내 심미적 현대성을 획득할 수 있었다(Ra, 2009).

2) 20세기 이후의 추에 대한 논의

20세기 이후의 추에 관한 미학 담론은 아도르노와 에코의 견해, 그리고 다양한 학자들이 말하는 키치(kitch)와 캠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프로이트(Freud)로 시작되어 라캉(Lacan)과 크리스테바(Kristeva)에 이르는 정신분석학의 맥락에서도 추의 양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1) 미학

아도르노는 현대 예술에 대한 진단을 통해 추를 미에 못지않게 역동적인 범주로 간주했다(Adorno, 1970/1997). 그는 추가 미의 부정형이 아니며 현대 예술에서 추의 비중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추와 미를 완전히 분리하여 이해할 것을 권고했다(Park, 2004). 아도르노는 예술 속에서의 추를 미학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

윤리적 관점으로 확장했는데, 그가 생각한 추는 조형적으로 추한 형식과 주제를 넘어서는 것이었다(Chung, 2006). 아도르노의 추 개념은 미학적 고려를 넘어서서 정신의 원칙으로까지 승화된 지배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있는 사회의 억압과 관계되어 있다(Yoo, 2010).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추는 고전적 미에 의해 억압되고 제지되어 왔는데,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아도르노 미학의 목표였다(Cook, 2020). 이를 위해 그는 ‘부정성’의 미학을 이론적 근거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예술은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기에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Lee, 2004). 또한, 예술 속에 타자로서 등장하는 추한 형태들은 억압적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자연과 인간 사회에 대한 강제적 속박을 부정하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을 포함한 모든 것을 코드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비합리성을 고발할 사명을 지닌다고 주장했다(Fuller, 2016). 에코는 타자의 추로서 키치와 캠프를 소개했는데, 예술 속에 추한 것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예술가들이 사회 속의 악을 대중들에게 상기시키고 고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Eco, 2007/2008).

일반적으로 키치는 저속하고 악한 취향, 전통에 대한 이단, 원본에 대한 복제품 등에 쓰이는 악취미의 대표적인 말로 사용된다(Bae, 2006). 브로흐(Broch)는 키치를 악한 것으로 간주하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위해서가 아닌 미적 쾌를 위해 과거의 형식을 모방하고 반복하므로 악한 것이라 말했다(Eco, 2007/2008). 키치를 예술 발전을 저해하는 악으로 정의한 브로흐로 인해 이후 키치를 도덕적 기준에서 평가하는 흐름이 발생하게 되었다(Jung, 2014). 쿨카(Kulka)도 키치가 새로운 형식의 예술에 도전하지 않고 정형화되어 버린 대상과 조형 방법, 그리고 그 효과 간의 결합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쁜 예술이라고 주장했다(Kulka, 1996). 또한, 칼스텐(Karsten)은 키치 예술가들은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드러내기 보다는 자아도취적이고 자기기만적인 활동을 한다고 말했으며(Harries, 1979/1998), 기츠(Giesz)도 키치 현상을 미학적으로 추에 위치시켰다(Jin, 2001). 한편, 손택은 60년대의 팝아트 이후 예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캠프라는 유희주의적인 취향을 소개했다. 캠프는 윤리적 가치 판단 없이 예술의 목적을 단지 유희에서 찾기 때문에, 경박함과 가벼움, 엄숙성에 대한 거부, 스타일에 대한 탐닉 등이 캠프의 주요 특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Park, 2005). 또한, 캠프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다양한 예술적 가치들의 융합으로 인해, 일정 부분 퀴어(queer)의 문제를 예술로 끌어들이어 왔다(Eco, 2007/2008). 캠프가 곧 동성애와 관련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규범적이고 젠더 전복적인 퀴어와 관련된 예술은 캠프의 취향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2) 정신분석학

프로이트에 의해 무의식의 저변을 탐구하는 정신분석학이 탄생하였고, 라캉은 정신분석을 철학과 예술을 포함한 문화 해석의 기호로서 바라보았다(Homer, 2005/2006). 이후 크리스테바에 이르러 정신분석학은 본격적으로 미학적 관점에서도 논의되었다(Hyun, 2003). 정신분석학에서 추라는 개념을 직접 표명하지는 않지만, 법과 질서로 대변되는 수많은 금기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주체가, 금기를 위반하고 근원적인 실재를 희구할 때 비미(非美)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Nam, 2008). 프로이트는 아름다움에 관한 이론으로만 한정되었던 미학을 감수성의 여러 특질에 관한 학문인 감성학으로 확장하면서, 전통 미학에서 소외되던 혐오스럽고 곤혹스러운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정당성을 비로소 찾게 되었다(Park, 2018).

프로이트는 낯설음을 특징으로 하는 공포감의 한 변종으로 언캐니(uncanny)를 말하는데, 이는 오래도록 알고 있었던 친숙했던 것으로부터 도출되는 감정이라 밝혔다(Freud, 1910/2020). 한편, 그로테스크에 대한 미학적 논의에서 루소(Russo)는 프로이트의 언캐니를 활용하여, 심리적 차원에서 공포를 유발하는 언캐니 그로테스크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Oh, 2017). 또, 언캐니에 대한 논의는 모리(Mori)에 의해 불쾌한 골짜기(uncanny valley) 이론까지 확장되었다. 이 이론은 인공지능 로봇의 외형이 인간과 닮을수록 처음에는 호감도가 증가하지만, 정도가 지나쳐 특정 지점에 이르게 되면 로봇에 대해 인간이 외려 섬뜩함을 느끼게 된다는 개념이다(Ryu, 2014). 또한, 프로이트는 죽음 본능이라는 타나토스(thanatos) 개념을 제시하며, 모든 생명체가 근원적 형태인 무생물의 단계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을 설명했다(Freud, 1920/1997). 이처럼 삶이 아닌 죽음을 향한 욕망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고통을 자처하거나 감내하는 데에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원리가 있음을 암시한다(Lee, 2001). 라캉도 최초의 상태에 대한 욕망을 의미하는 죽음 충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에게 실재는 금기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상징계 너머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주체들

은 상징계 너머의 실재와의 조우를 근본적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이다(Kim, 2009). 이는 불쾌나 고통과 더 긴밀하게 연관된 만족인 주이상스(jouissance)로, 이를 회복시키려는 죽음 충동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라캉의 대상 a(objet petit a)이다(Hong, 1999). 대상 a는 상징계에서 타자성으로 금지되고 은폐되어왔던 것이기에 그것의 추구는 고통, 부끄러움, 죄의식 등을 동반한다(Kim, 1997). 대상 a로 인한 주이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 원리와 쾌락 원칙에 반하는 즉, 미의 작동 원리에 위배되는 추를 향해있다(Hong, 1999). 크리스테바는 상징계에서 주체의 형성 과정을 애브젝트(aject)와 애브젝션(abjection)이라는 용어로 설명했다(Kristeva, 1980/2001). 상징적 질서가 통용되는 사회에서 주체의 위치에 위협적인 것을 공포와 혐오의 감정을 통해 밀어내는 현상이 애브젝션이며, 이때 거부되는 대상이 바로 애브젝트이다(Cho, 2012). 마치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가 태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기원인 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을 공포와 혐오의 대상으로 여겨 어머니를 가장 먼저 애브젝션하는 것과도 같다(Hyun, 2003). 금기와 위반의 변증법을 제시한 바타이유(Bataille)도 우리가 어머니와 분리되는 탄생의 순간부터, ‘자아’와 ‘타자’를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이를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Bataille, 1957/2009). 연속성은 주체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 죽음으로만 가능하지만, 바타이유에 따르면 에로티즘은 죽지 않고 연속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기능한다(Bataille, 1957/2009). 그러나 그는 사회 공동체의 관점에서 죽음은 노동력의 상실로 이어져 역사적으로 금기로 여겨져 왔으며, 생식적 목적과 무관한 인간의 에로티즘은 에너지의 상당한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았다(Bataille, 1957/2009). 그러나 이미 프로이트는 성도착을 논의하였는데(Kim, 1997), 생식과 관련 없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도착에 가까운 것이며 특정 신체에 대한 페티시, 관음증, 사도 마조히즘으로 나타난다(Spector, 1973/1998).

3.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

지금까지 단지 미의 부정형으로만 여겨졌던 고대의 추에 대한 관점에서부터 추의 체계를 확립한 근대의 로젠크란츠에 이르기까지 추의 개념을 사적으로 고찰하고, 20세기 이후 미학과 정신분석학의 담론 속

에서 추의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현대 패션, 특히나 패션 필름 속에서 추의 논점들을 폭넓게 분석하기 위해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그리고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현대적 관점의 추로서 제안한다. 본 연구의 추에 대한 관점을 도식화하면 <Table 1>과 같다.

첫째,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금지되어 온 것에 관한 것이다. 죽은 대상에게서 느끼는 두려움과 혐오스

러움, 육체와 관련된 성적 욕망 등은 문화적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금기시 되었다. 둘째,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는 공포감을 비롯한 낯설고 불쾌한 감정에 대한 것으로, 고대 신화속의 괴물과 악마 형상, 그리고 비현실적인 존재로부터 기인한다. 셋째,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는 권위의 격하와 원본적 질서의 파괴를 일삼는 저급한 웃음의 전복적 속성을 내포한다. 넷째,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모순적인 구조를 폭로하고 자연을 포함한 사회적 타자들을 구원하는 관점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드러낸다.

Table 1. Perspectives on the ugliness of this study

Ugliness perspective	Before the 20th century			After the 20th century	
	Ancient	Middle ages	Modern	Aesthetics	Psychoanalysis
Violation of taboo	<Ugliness in Plato's art> Ugliness in art negatively affects society and human ethical consciousness.	<Christian society> Body and desire as opposed to spirit and soul are sinful.	<Baroque art> Growing appetite for ugliness, which is strongly expressive and arouses wonders.	<Adorno's theory of aesthetics> Examples of ugliness in art are 'corpse and dying', 'promiscuous sexual activity'.	<Uncanny> 'Jentsch': Uncanny stems from uncertainty about life. 'Freud': Uncanny is a variant of the fear evoked by familiar objects.
Unpleasant emotion	<The poetics of Aristoteles> Laughter has a low quality, but it is a means of conveying truth that can criticize authority and ridicule piety.	<The problem of evil of Aquinas> The root cause of ugliness and evil in the universe is human, not God.	<Caricature> An art genre aiming at the effect of satire by exaggerating the appearance of the subject in a humorous way.	<Adorno's negativity> Critique the relationship of oppression in the dominant ideology through the aesthetics of negativity. Art has a mission to denounce the irrationality of the capitalist system, which 'codes' everything, including nature, by bringing ugly others who have been sacrificed to totality into the work.	<Uncanny Grotesque> 'Russo': Introduces the uncanny grotesque that uses Freud's uncanny to induce fear on a psychological level. <Uncanny Valley> 'Mori': Theorizing the unfamiliar emotions felt by objects similar to humans due to the uncertainty of existence.
Vulgar taste		<Monsters against creation order> Pagan, demonic, and comical forms contrary to the order of creation are prohibited.	<Sublime> Burke: The sublime aesthetic category includes fear and other ugly emotions.		
Ethical flaw	<Ancient greek mythology> Figures of gods that violate taboos, such as murder, cannibalism, and incest. <Hybrid monsters> Such as sphinx and chimira. <The ugliness of Plotinos', evil and non-existence> Death without life is ugly.	<Appropriateness of Aquinas> Anything that disturbs the creative order is ugly. <Macabre> A disgusting and loathsome death in a realistic view of the late Middle Ages.	<Schiller's On the Aesthetic Education of Man> Affirms the imagery of vulgarity and lowliness in art. <Schlegel's thoughts on the use of vulgarity and lowliness in art> Ugliness in art is an insight into the modern situation and an expression of pain in reality.	<Eco's beauty history> Monsters are objects that inspire fear and fascination at the same time. <Eco's why ugly things appear in art> It is for artists to constantly remind and accuse the public of evil in society.	<Thanatos and the death impulse> The instinct to return to the first state of life. <Kristeva's abjection> 'Abjection' is an action of a subject that excludes disorderly things, dirty things, and lowly things that are considered inappropriate to be established as subjects in society.

The color notation in the table is the classification of contents related to 'perspectives on the ugliness'.

Table 1. Continued I

Ugliness perspective	Before the 20th century			After the 20th century	
	Ancient	Middle ages	Modern	Aesthetics	Psychoanalysis
		<p><Memento mori> Reminding everyone that death is inevitable, and that present wealth and power are ephemeral.</p> <p><Carnival> A festival to downgrade the authority of the church through obscene and exaggerated words and actions.</p>	<p><The dialectic of ugliness> 'Rosenkranz' : Ugliness is a concept that starts with beauty and completes with laughter and comics. : Hostile characteristics that go against the aesthetic form. ex) insignificance, weakness, lowliness.</p> <p><Rosenkranz's disgust> 'Dead and emptiness': Contrasted with the brilliance of life in the state of extinction of life. A characteristic of ugliness that can be expressed in terms of disgust.</p> <p><The evil of Rosenkranz> 'Criminal': Covering various types of criminal activity.</p> <p><Rosenkranz's the ghostly thing> It's fear of unrealistic objects. 'The devil' cause harm by deliberately ignoring good.</p>	<p><Kitsch> 'Eco': Introduced kitsch and camp as the ugliness of the others. 'Broch': Kitsch is an evil art that does not build value for the future and only imitates the past. 'Kulka': Kitsch is a bad art that doesn't form new meanings, only imitates it for public appeal. 'Karsten': Kitsch is a self-deceptive art for a certain mood. 'Greenberg': Kitsch is an impure art that feeds on public popularity and commerce. 'Giesz': Kitsch has negative connotations, so aesthetically it is in the middle. 'Calinescu': Kitsch is an ugly art associated with bad hobbies.</p> <p><Camp> Aesthetic sensibility. Characterized by frivolity, lightness, and intentional vulgarity, it has relevance to queer aesthetics that disturb the original gender order.</p>	<p>The object to be rejected is called 'abject'. The body is the most extreme form of abject occurring in the body.</p> <p><Bataille's taboo on death>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ommunity, death leading to loss of labor is historically considered taboo. In a society where human labor is essential, eroticism, not sex for reproductive purposes, has been regarded as a form of violence against society and has been tabooed.</p> <p><Erotic art and pornography> 'Joyce': Erotic art is an aesthetic experience, while pornography is a mind-disrupting distortion of sexuality. 'Clarke': Erotic art has a didactic meaning, while pornography aims at sexual provocation and bodily gratification.</p>

The color notation in the table is the classification of contents related to 'perspectives on the ugliness'.

III. SHOWstudio의 패션 필름에 나타나는 추

본 연구는 문헌 연구 고찰을 통해 개념화한 추에 대한 현대적 관점<Table 1>을 바탕으로, 추의 개념과 이미지가 포함된 SHOWstudio의 패션 필름 145편을 분류하여 구체적인 내용과 그 요소들을 면밀하게 분석해보았다. 추의 개념 자체는 다양한 특질을 지니고 있어서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에, 하나의 패

션 필름이 한가지의 개념만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선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한 각 추의 개념들을 바탕으로<Table 1> 가장 대표되는 특징을 지닌 패션 필름을 분류하여 각 개념의 사례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가 정립한 현대적 추의 관점으로 살펴본 패션 필름 작품의 수는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52편,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38편,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25편,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 30편으로 나타났다.

1)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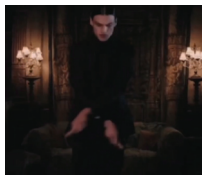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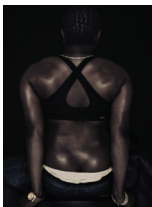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죽은 대상에게서 느끼는 두려움과 혐오스러움, 그리고 육체와 관련된 성적 욕망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금지되어 왔다. 또한, 바타이유는 에로티즘을 ‘작은 죽음’이라 명명하고, 문화적 발전을 저해해온 죽음과 에로티즘을 금기로서 언급했다(Bataille, 1957/2009). 이에 따라 본 연구는 <Table 2>처럼 금기를 ‘죽음 금기(22편)’와 ‘성 금기(30편)’로 구분하여 패션 필름을 분석하였다.

죽음에 대한 금기의 위반은 실제적인 죽음을 표현한 ‘마카브르’ 작품과 정신분석학의 죽음인 ‘애브젝트’ 작품으로 나타났다. 먼저, ‘마카브르’는 주로 시체, 피, 해골 등을 통해 표현되었다. ‘Branded #1’ <Fig. 1>에서 선보인 지방시(Givenchy)와 디올(Dior)의 두 편의 필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다. 두 브랜드는 잔혹한 이미지에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이미지를 결합한 작품인데, 지방시는 나무에 매달린 마녀, 피투성이 시체 등 중세 후기의 현실적이고 끔찍한 죽음에 대한 장면들이 제시된다. 디올도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 목이 잘린 사람 등 잔혹한 장면이 우아한 광고 영상과 함께 반복된다. 해당 작품은 인터넷상에서는 잔인하고 성적인 이미지가 범람하지만, 공적 미디어는 검열이 너무 강한 역설적인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Stoppard, 2015). 이렇듯 추의 미적 요소를 통해 브랜딩의 힘과 잔혹성으로 인한 검열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죽음 금기 위반에의 추는 역겹고 혐오스러운 ‘애브젝트’의 장면을 담고 있는 작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Gareth Pugh S/S 18’ <Fig. 2>은 정신분석학의 애브젝트가 극적으로 표

현된 것으로, 아버지와 아들로 연상되는 두 남성이 마주 보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아들이 절규하는 모습을 통해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근본적인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기 시작함을 암시한다. 정신분석학에서 상징계의 질서는 아버지의 법이라는 단어로 표현되며 그에 반하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은 어머니의 자궁으로 비유된다(Park, 2009). 이후 장면에서 여성의 생식기인 자궁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퍼포먼스는 고통스럽지만 원초적인 상태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라캉의 주이상스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성 금기의 위반은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표현한 작품, 동성애 성향, 그리고 다양한 성적 페티시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나타났다. 로젠크란츠는 추의 감각적 측면인 ‘구역질 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아무런 목적 없는 노골적인 포르노그래피를 제시했는데, ‘Chest’ <Fig. 3>는 여성의 가슴을 노출시키면서 여러 형태의 에로틱한 속옷과 여성의 행동으로 포르노그래피를 연상케 한다. 필름 속 속옷은 옷의 기능 없이 단순히 영상의 에로틱한 분위기에 일조할 뿐이다. 다음으로 동성애 성향으로 성 금기의 추를 표현하는 작품이 있다. 프로이트는 동성애를 생식활동이 불가능한 성의 형태로 보았으며, 성적 대상의 측면에서 하나의 성도착증으로 분류하였다(Yun, 2016). ‘Studs’ <Fig. 4>의 제목은 레즈비언 성 경향 중 남성의 역할을 하는 여성을 칭하는데, 영상에서 젠더의 경계를 넘나드는 스티드들을 기용하여 타투와 액세서리를 통해 남성성을 강조했다. 성적 페티시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으로, 신체를 결박하고 구속하는 유형의 페티시인 본디지(bondage)를 다룬 필름 ‘Tessa’ <Fig. 5>가 있다. 여성이 자신의 성적 페티시를

Table 2. Fashion films dealing with ugliness as ‘violation of taboo’

Violation of the death taboo		Violation of sexual taboo		
				
Fig. 1. Branded #1. Adapted from SHOWstudio (2015). https://www.youtube.com	Fig. 2. Gareth Pugh S/S 18. Adapted from Knight et al. (2017). https://showstudio.com	Fig. 3. Chest. Adapted from SHOWstudio (2018). https://www.youtube.com	Fig. 4. Studs. Adapted from Knight (2012). https://showstudio.com	Fig. 5. Tessa. Adapted from Knight and Couceiro (2019). https://showstudio.com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모습을 통해 남성 중심의 성 문화에 대한 반발을 보여주었다. 여성이 성적 페티시를 구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남성의 슈트를 입고 있는 등 남성의 권위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밖에 스타킹과 높은 힐 등 특정 패션 아이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페티시가 드러나는 패션 필름들도 볼 수 있었다.

2)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추의 두 번째 관점인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는 공포나 두려움, 낯설과 생경함을 자아내는 감정적 측면에 관한 것을 뜻한다. 이는 <Table 3>처럼 초자연적 현상이나 존재로부터 기인한 공포의 감정을 다룬 작품(20편), 불쾌한 골짜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작품(7편), 그리고 비이성적인 상황으로 인한 생경한 감정을 표현한 작품(11편)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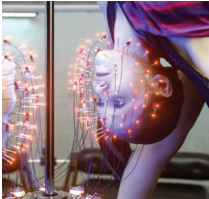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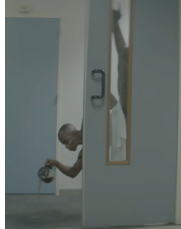
먼저, 초자연적 현상과 존재로부터의 공포를 다루는 패션 필름을 통해서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의 미학을 볼 수 있다. 해당 필름들은 크게 악마 숭배, 구마 의식과 같은 오컬티즘(occultism)과 초자연적이고 신비스러운 존재와 현상을 주제로 한 작품이 주로 속한다. 예를 들어 ‘Aquelarre #10’<Fig. 6>는 관람자들에게 공포심을 의도적으로 전달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로, 패션 미디어에서 표현된 아름다움과 화려함에 대항하는 두렵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Knight, 2015). 영상은 마녀들의 사탄 의식의 다양한 모습이 표현되었으며, 모델들은 가레스 퓨, 폼 데 가르송(COMME des GARÇONS) 등 전위적인 브랜

드의 옷을 그로테스크한 헤드피스 및 마스크와 함께 착용했다. 이는 로젠크란츠는 추의 범주 중 하나로 ‘유령적인 것’과 유사한 것으로, 비현실적인 존재로부터 추한 감정으로서 공포가 유발된다.

불쾌한 골짜기 효과는 특정 대상이나 생명에 대한 존재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Kim & Cho, 2018). 즉, 인간과 아주 유사하여 친숙하지만, 인격이 박탈당한 듯 보이는 대상에게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필름 속에서 이 같은 효과는 신체의 변형으로 인간성이 결여된 존재나 미래 인류의 형태인 포스트 휴먼 등을 통해 현 존재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Make up your mind’<Fig. 7>의 모델들은 누드톤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데, 관람자들은 그들이 인간임을 알지만 얼굴이 가려져 있어서 인간임을 확신할 수 없게 되어 불쾌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한편, 기계와 결합하거나 디지털화된 포스트 휴먼의 이미지를 통해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작품도 있다. ‘Ceremonial formality’<Fig. 8>는 각종 디지털 하드웨어로 둘러싸이고 증기 제트와 호흡 장치를 통해 숨을 쉬는 모습을 담고 있어 불쾌한 골짜기 효과를 유발한다. 이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 육체와 정신 중 인간성의 근원이 어디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졌다. 사물을 탈맥락화하여 생경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작품도 있다. ‘The laboratory of capitalism’<Fig. 9>은 천막과 비닐, 마네킹들이 무의미하게 반복되어 나타나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데, 소비지상주의와 성 상품화에 대한 메

Table 3. Fashion films dealing with ugliness as ‘unpleasant emotion’

Supernatural phenomena and fear from existence	Tension from the uncanny valley effect	Unfamiliarity resulting from irrational situations		
				
<p>Fig. 6. Aquelarre #10. Adapted from Knight (2015). https://showstudio.com</p>	<p>Fig. 7. Make up your mind. Adapted from Knight and Hogben (2008). https://showstudio.com</p>	<p>Fig. 8. Ceremonial formality. Adapted from Heyman (2020). https://showstudio.com</p>	<p>Fig. 9. The laboratory of capitalism. Adapted from Evans (2008). https://showstudio.com</p>	<p>Fig. 10. Ninamounah × Stadman. Lara. Adapted from Verheijdem and Stadman (2018). https://showstudio.com</p>

시지를 담아냈다. 이는 합리적인 의식을 초월한 세계가 전개되어 낯설고 불편한 감정을 유발한다(Yeou, 2014). ‘Ninamounah × Stadman.Lala’<Fig. 10>는 직장 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장면을 탈맥락화하여 표현하였다. 컵이 아닌 바닥에 커피를 붓거나 변기 물로 세수를 하는 등 기이한 행동으로 현실성을 결여시키고 있다.

3)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해당 추의 특성은 고전적 미의 엄숙함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서 의도적인 조야함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Table 4>처럼 권위의 격하 및 풍자, 그리고 대담하고 이색적인 쿼어를 표현한 작품 15편에서 나타났다.

먼저, 패션계의 기존 권위에 도전한 작품들과 저급하고 희극적인 이미지를 통해 비판적 의미를 지닌 작품을 볼 수 있다. ‘Scale’<Fig. 11>은 극단적인 형태의 과장과 왜곡을 보여주는 필름으로, 영상의 기획 의도를 파악하기 힘든 유미주의적 작품이다. 조야한 감성을 담고 있는데, 과장된 메이크업을 한 성인이 풍선을 터트리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아이들의 놀이를 하는 모습을 통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표현했다. 미우미우(Miu Miu), 지미 추(Jimmy Choo), 구찌(Gucci) 등 럭셔리 브랜드의 컬렉션이 작품에 활용되었지만, 극단적인 비율의 왜곡을 통해 옷의 형태를 파악하기 어렵고, 복식은 작품의 미적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만을 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희극이 진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임을 인식하였으며, 현대 예술 장르 또한 웃음이 기존의 가치 체계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함을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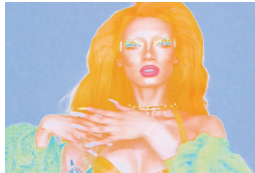
정해왔다(O, 2006). 풍자적 메시지를 담은 ‘Face your mask’<Fig. 12>는 르네상스 시대의 미적 결정체로 여겨지는 명화 모나리자를 패러디하여, 외모만을 통해서 존재의 내면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특히 패션계에서는 몸과 외적인 모습이 가장 강력한 권력으로서 존재하지만, 디지털 기술로 인해 외형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폭로하고, 마스크 뒤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희구를 암시한다.

손택의 캠프는 지나칠 정도로 탐미주의적인 취향으로 진지함과 엄숙성에 반하고 의도적인 저급함을 추구한다(Eco, 2007/2008). 트랙 퍼포먼스를 통해 미의 극단을 탐구한 작품 ‘Infamy’<Fig. 13>는 인스타그램에서 기괴한 메이크업과 행동을 보이는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으로 제작되었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을 넘나드는 트랙이 아닌, 천사와 악마, 심해 생물, 식물과의 결합 등 많은 정체성을 직접 디자인한 복식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쿼어 문화에 대한 작품도 볼 수 있다. ‘@Uglyworldwide’<Fig. 14>는 탐미적인 형식으로 쿼어를 다루는데,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트랙 퀸 스타일을 선보이며 트랙은 과장된 여성성을 수행하는 스타일일 뿐 꼭 남성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당 작품 속 복식은 자신만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며, 쿼어 문화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었다.

4)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

본 연구에서 도출한 추의 마지막 특성인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나타내는 총 30편의 작품들을 담고

Table 4. Fashion films dealing with ugliness as ‘vulgar taste’

Downgrading and sarcasm		Bold and eccentric queer	
			
<p>Fig. 11. Scale. Adapted from Knight and Bazaar (2021). https://showstudio.com</p>	<p>Fig. 12. Face your mask. Adapted from Dragan (2019). https://showstudio.com</p>	<p>Fig. 13. Infamy. Adapted from SHOWstudio (2020). https://www.youtube.com</p>	<p>Fig. 14. @Uglyworldwide. Adapted from Knight and Ku (2019). https://showstudio.com</p>

있는 주제에 따라 <Table 5>처럼 정치적 문제와 전쟁을 표현한 작품, 소수자가 받는 차별을 다룬 작품, 자연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전달한 작품, 그리고 여성 문제와 물질주의에 대한 작품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은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파시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영상과 내전을 겪고 있는 국가에 대한 작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도르노는 현대 예술이 끊임없이 추를 주제로 하는 것은, 이 세계에 만연한 악을 예술을 통해 폭로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점근선이라는 뜻의 ‘Asymptote’ <Fig. 15>는 똑같은 회색 슈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남성들과 빨간 원피스를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주어,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특정 시스템을 벗어날 수 없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The red shoes’ <Fig. 16>는 리비아 내전의 참혹한 현실을 표현한 다큐멘터리 패션 필름이다. 패션에 대한 열망으로 리비아에서 귀한 패션 아이템인 빨간 하이힐을 얻기 위해 전쟁에 나갔으나, 결국 강간당하고 살해당한 소녀의 이야기를 담담한 어조로 들려주고 있다.

인종, 민족 등 사회적 타자로서 약자들이 직면하는 차별을 다룸으로써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추를 보여주기도 했다. 유명 패션모델이 겪었던 패션업계에서의 인종 차별을 표현한 ‘Untitled by Naomi Campbell’ <Fig. 17> 작품을 볼 수 있다. 또한, ‘The rite’ <Fig. 18>는 다운 중후군 환자들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차별과 문제점들을 언급하고 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전달한다. 그들의 옷은 흰색 상하의에 종교적 색채의 이미지가 그려졌고, 메이크업도 유사한 색 이미지로 드러났다.

지배 이데올로기가 태초에 신비로움을 간직한 채미메시스의 대상으로 존재했던 자연까지도 사물화함에 따라 자연은 문명의 타자로 여겨졌다. 이러한 타자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도르노 미학의 핵심이다(Chung, 2006). ‘UN.A, color’ <Fig. 19> 작품은 한 모델이 화려한 광물질의 장신구에 동물 털이 달린 옷을 착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동물로 인해 점차 털로 뒤덮여 이상한 형태로 변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에 대한 착취와 패션업계의 지나친 동물 소재의 사용을 비판하였다.

여성은 수 세기 동안 남성의 타자로 여겨져 왔으며,

사회 문화적으로 남성과 유사한 수준의 권리를 획득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Cho, 2012). ‘Edith’ <Fig. 20>는 오랫동안 여성을 옥죄어왔던 사회의 장벽을, 코르셋을 풀어헤치는 모습을 통해 극복하는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다. 여성 모델은 남성들에 의해 코르셋이 채워지는 수동적인 존재로 나타나지만, 결국 이들에게서 벗어나 스스로 코르셋을 풀어헤치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다. ‘Rear guard’ <Fig. 21>는 여성의 성 상품화를 비판한 작품으로, 치어 리딩 옷을 입은 여성들을 통해 현대 패션에서의 여성에 대한 과잉 성화의 문제를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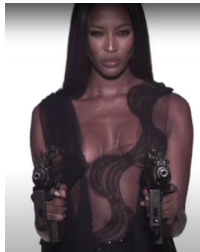





아도르노는 자본주의가 모든 것을 물질적 가치에 맞게 코드화시킴에 따라, 예술까지도 이데올로기와 화해하여 아무런 사회적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순수한 예술로 전락함을 진단했다(Kim, 2012). 이러한 타락한 예술과 달리 SHOWstudio의 작품은 과소비와 외모지상주의 등 정신적 가치가 중요성을 잃은 현대 사회에 만연한 물질만능주의를, 추한 이미지를 통해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Eat fashion’ <Fig. 22>은 모델이 패션 잡지를 뜯어먹음에 따라 계속해서 옷이 몸 위에 축적되면서 괴상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장면을 통해, 현대 패션에서의 과소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5) SHOWstudio의 패션 필름 속 복식의 역할

본 연구에서 정립한 네 가지 추의 관점으로 SHOWstudio의 패션 필름을 살펴본 결과, 추의 관점에 따라 패션 필름에서 복식이 갖는 위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첫째,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를 다룬 패션 필름 속에서 복식은 대부분 작품의 주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우선, 죽음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작품 속에서 복식은 죽음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 오브제로 기능했다. 새하얀 옷과 이에 스며드는 붉은 피의 색채 대비를 통해 죽음을 표현하거나 속옷만 착용한 모델을 등장시켜 죽음의 에로틱한 모습을 형상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 금기의 위반을 다룬 작품들 속에서도 대부분의 복식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한 요소로서 기능했다. 특히 ‘Tessa’ <Fig. 5>는 작품의 주제인 여성의 성적 해방을 남성의 정장과 넥타이는 물론, 인공 페니스까지 착용한 모델의 모습을 통해 표현되었는데, 복식은 아티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집약된 요소로 작품 전

Table 5. Fashion films dealing with ugliness as ‘ethical flaw’

Political problems and war		Discrimination against minorities	
 <p>Fig. 15. Asymptote. Adapted from Keller (2016). https://showstudio.com</p>	 <p>Fig. 16. The red shoes. Adapted from Hed (2008). https://showstudio.com</p>	 <p>Fig. 17. Untitled. Adapted from Knight (2008). https://showstudio.com</p>	 <p>Fig. 18. The rite. Adapted from Keller (2019). https://showstudio.com</p>
Awareness of the natural environment	Women's problems		Materialism
 <p>Fig. 19. UN.A. color. Adapted from Hirano (2018). https://showstudio.com</p>	 <p>Fig. 20. Edith. Adapted from Nadal (2016). https://showstudio.com</p>	 <p>Fig. 21. Rear guard. Adapted from Ferguson (2013). https://showstudio.com</p>	 <p>Fig. 22. Eat fashion. Adapted from McQueen (2002). https://showstudio.com</p>

개에 핵심적인 기능을 했다. 둘째, 추의 다른 관점들에 비해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추를 표현한 작품에서는 복식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 물론, 복식은 검은색 위주의 옷을 사용하거나 기괴한 헤드피스와 마스크 등 그로테스크한 디자인의 조형물은 작품의 분위기를 강화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불쾌한 감정은 초자연적인 존재나 불쾌한 골짜기 효과를 일으키는 대상, 신체 자체의 극단적인 변형, 혹은 아이러니한 상황 등에서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작품에서 추한 감정은 복식 외적인 요소로부터 유발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추가 나타난 작품에서 복식은 추한 감정을 유발하는 데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제한적인 기능을 할 뿐이었다. 셋째,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가 나타난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작품의 조형성을 강화하거나 복식이 작품의 주제로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였다. 특히 ‘In-

famy’<Fig. 13>와 ‘@Uglyworldwide’<Fig. 14>와 같이 퀴어 정체성을 표현한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그 자체가 작품의 주제로서 기능했다. 트랙이 생물학적 성별과 다른 성별의 복식을 통해 과장된 행동을 연기하는 장르이기에, 퀴어 주체의 트랙 퍼포먼스를 담은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그들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데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Uglyworldwide’<Fig. 14> 속의 모델은 여성이지만, 트랙 퀴의 복식을 흉내냄으로써 퀴어 문화에 내재한 문제점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넷째,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표현한 작품에서는 정치적 사안의 주제와 같이 패션의 요소가 작품 밖에서 개념적으로 등장하여 복식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대부분 복식은 작품의 주제 전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나타났다. ‘Asymptote’<Fig. 15>에서 남성 무리와 여성들은 각각 똑같은 회색 슈트와 붉은색 원피스를 착용한 모습

으로 표현되어,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자유의 억압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복식을 통해 전달했다. ‘UN.A, color’<Fig. 19>에서 복식은 동물의 털로 덮인 기괴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패션업계의 지나친 동물성 소재의 사용을 단적으로 비판했다.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를 표현한 작품들 중 여성 문제를 다룬 작품들 속에서 복식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는데, ‘Edith’<Fig. 20>는 여성 장벽의 대표적인 기표로 여겨지는 코르셋을 통해 작품의 서사를 이어 나갔다. 그밖에 물질지상주의를 비판한 작품들은 패션업계의 과소비를 지적한 작품이 다수였는데, ‘Eat fashion’<Fig. 22>에서는 소비를 함에 따라 모델들의 몸에 옷이 하나씩 추가되는 모습을 통해 패션의 사치 풍조를 비판하였다. 이처럼 사회의 윤리적 결함을 지적한 패션 필름에서 복식은 영상 자체의 미적 표현을 강화하기보다는 작품의 비판적 의도를 직접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추의 미학을 논한 기존 연구의 연장으로서 최근 핵심적인 패션 미디어로 기능하고 있는 패션 필름에서 나타나는 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철학, 미학, 그리고 예술에서 등장한 추에 관한 입장을 사적으로 고찰한 후, 20세기 이후 미학과 정신분석학에서 논의된 추의 개념들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적 추에 대한 관점을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 그리고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로 정립하였다. 이후 나이트가 설립한 SHOWstudio의 작품들을 살펴보고 주요 패션 필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 필름에서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는 직접적인 죽음인 마카브르와 정신분석학적 죽음인 애브젝트를 표현하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성 금기에 대한 위반으로서 성적 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적 페티시를 표현함으로써 성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의 속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둘째,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는 초자연적 현상으로부터의 공포감, 불쾌한 골짜기 효과로 인한 긴장감, 비이성적 상황에서 기인한 생경함으로 드러났다. 작품 속에서 초자연적 존재들로 나타내기도 했

지만, 사탄 숭배나 퇴마 의식 같은 미스터리한 현상을 다룸으로써 추가 예술적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셋째,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가 나타난 패션 필름은 권위의 격하 및 풍자를 주제로 한 작품과 대담하고 이색적인 쿼어를 표현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컬렉션을 선보이는 패션 필름에서도 이미지를 왜곡하고 애니메이션 기술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추한 형식을 표방하였으며, 고전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럭셔리 브랜드의 희화화를 통해 의도적으로 권위를 깎아내리기도 하였다. 또한, 과한 메이크업과 복식을 통해 원본적인 젠더에 반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트랙 쿼의 모습을 다룬 작품과 쿼어 문화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제시한 작품도 이에 속한다. 넷째,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는 정치적 문제와 전쟁을 다룬 작품, 소수자가 받는 차별을 다룬 작품,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표현한 작품, 여성 문제를 드러낸 작품, 그리고 물질주의의 문제점을 표현한 작품으로 나타났다. 전쟁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주제로 삼기도 하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입장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또한, 환경 파괴에 대한 경각심과 여성이 사회에서 겪는 차별과 제약을 복식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패션업계에 만연한 물질지상주의를 비판한 작품이 다수 나타났다.

사례 분석을 시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의 관점에 따라 작품 속 복식의 역할에 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금기의 위반으로서의 추를 다룬 작품에서 복식은 파편화된 모습, 죽음을 암시하는 오브제 등으로 주제를 강화하였는데, 특히 성 금기의 위반에 대한 표현은 각종 페티시의 대상이 되는 복식을 사용할 수 있었다. 불쾌한 감정으로서의 추가 나타난 패션 필름에서는 복식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기괴한 헤드피스나 검은색의 옷 등은 작품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데에 일조하기도 했지만, 해당 특성의 추는 그 원인이 특정 대상이나 상황 자체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기에 복식이 추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못했다. 또한, 천박한 취향으로서의 추가 나타난 작품에서의 복식은 영상의 조형미를 돋보이게 하거나, 정체성 표현의 핵심 도구로 복식이 활용되어 작품의 주제 전달에 중요한 요소로 기능했다. 윤리적 결함으로서의 추에 관한 복식은 그 자체가 주제로서 위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다.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 신체 일부가 속박된 형태의 옷, 코르셋 등 복식은 작품의 비

판적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본 연구는 패션 필름에서 나타나는 추를 분석하여 컬렉션과 패션 이미지에 한정되었던 기존의 패션 분야의 추 논의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미의 반대로서 조형적 관점에만 머물러있었던 추를 금기에 대항하는 근원적 욕망의 표현으로서 추, 불쾌를 유발하는 감정적 차원으로서의 추, 원본 질서에 저항하는 타자의 담론으로서의 추, 그리고 윤리적 의미를 내포한 추로 확장하여 독립적인 미적 범주로서 추를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본 연구는 현대 패션에서 핵심적인 매체로 부상한 패션 필름을 연구대상으로 삼았지만, 연구범위를 SHOWstudio로 한정하여 사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제작되고 있는 패션 필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패션 필름의 유형별로 혹은 플랫폼별로 나타나는 작품의 표현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1. 사사

해당사항 없음

2. 연구윤리

해당사항 없음

3. 데이터 및 자료 가용성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 상충

저자 JC는 2017년 4월부터 본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지만, 편집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아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없음.

5. 연구비 지원

해당사항 없음

6. 저자의 기여

JH은 자료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해석, 원고 작성을 담당하였고, JL는 데이터 해석과 원고 작성을 담당하였고, JC는 연구의 구성 및 검토를 담당하였음. 모든 저자가 최종 원고를 읽고 승인하였음.

7. 저자 정보

홍준영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석사

이지선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박사

전재훈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무연구원

References

- Adorno, T. W. (1997). *Aesthetic theory* (S. Y. Hong, Trans.). Seoul: Moonji. (Original work published 1970)
- Ahn, M.-H. (2005). 중세의 죽음의 무도에 나타난 묵시록적 표상 [Apocalyptic representations in the medieval dance of death]. *Hesse-Forschung*, 14, 133-153.
- Ahn, S. K., & Yang, S. H. (1995). The concept of ugliness expressed in modern dress-Form the middle of 1980's to 1994-.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19(2), 173-189.
- Ariès, P. (2004). *죽음 앞의 인간*[Man before death] (S. I. Ko, Trans.). Seoul: Saemulgyeol. (Original work published 1985)
- Bae, S.-h. (2006).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unusual" of kitsch phenomena - Focused on a interior design -*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 Bartlett, D., Cole,, & Rocamora, A. (Eds.). (2013). *Fashion media: Past and present*.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lc.
- Bataille, G. (2009). *에로티즘(개정판)* [Erotism] (Rev. ed.). (H.-K. Jo, Trans.). Seoul: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57)
- Burke, E. (2006). *A philosophical enquiry into the origin of our ideas of the sublime and beautiful* (D. H. Kim, Trans.). Seoul: Mati. (Original work published 1757)
- Chin, J. (2003). *미학 오디세이1: 에셔와 함께 탐험하는 아름다움의 세계*[Aesthetic odyssey 1: Explore the world of beauty with Escher]. Seoul: Humanist.
- Chin, J. (2008). *춤추는 죽음1: 서양미술에 나타난 죽음의 미학*[Dancing death 1: The aesthetics of death in Western art]. Seoul: Sejong.
- Cho, E. (2015). A critical essay on Aristotle's *Poetics*. *DAEGU SAHAK*, 119, 393-430. doi:10.17751/DHR.119.393
- Cho, H. S. (2012). Reversal of motherhood, the murder of monster mother and the birth of subject in the dark night of the soul: Focussing on Julia Kristeva's abject. *The Korean Journal of Pastoral Care and Counseling*, 19, 157-187. doi:10.23905/kspcc.19..201211.006
- Cho, K, S. (2011). '추'의 가치전도와 '추한' 예술 [Transmitting the value of 'ugliness' and 'ugly' art]. *Buechner und Moderne Literatur*, 36, 35-59. doi:10.23039/ndl.2011..36.35
- Choi, M.-g. (2014). 18세기 미적 교양의 두 가지 구상: 실러와 슐레겔 [Two concepts of eighteenth-century aesthetic culture: Schiller and Schlegel].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13, 83-106. doi:10.23017/eurosc.2014..13.83
- Choi, M.-R. (2004). *The figu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image of ugliness appearing at modern make-u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Chung, H.-C. (2006). 아드르노의 미학적인 이론에 있어서의 부정성 개념 [The concept of negativity in Adorno's esthetic theory]. *Hegel-Studien*, 19, 183–217.
- Cook, D. (2020). Adorno, Kant and enlightenment. *Kantian Review*, 25(4), 541–557. doi:10.1017/S1369415420000400
- Díaz Soloaga, P., & García Guerrero, L. (2016). Fashion films as a new communication format to build fashion brands. *Communication & Society*, 29(2), 45–61. doi:10.15581/003.29.2.45-61
- Dragan, A. (2019, October 17). Shortlist: Face your mask.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shortlist-face-your-mask?autoplay=1>
- Eco, U. (2008). *추의 역사*[History of ugliness] (S. E. Oh, Trans.). Paju: The Open Books co. (Original work published 2007)
- Evans, J. (2008, July 23). Fashion film: The laboratory of capitalism.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jason_evans_the_laboratory_of_capitalism?autoplay=1
- Ferguson, K. (2013, October 25). Fashion film: Rear guard.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unk/kathryn_ferguson?autoplay=1
- Forcén, F. E., & Forcén, C. E. (2016). *Ars moriendi*: Coping with death in the late middle ages. *Palliative and Supportive Care*, 14(5), 553–560. doi:10.1017/S1478951515000954
- Freud, S. (1997). *쾌락의 원칙을 넘어서*[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C.-B. Park, Trans.). Seoul: The Open Books co. (Original work published 1920).
- Freud, S. (2020). *예술, 문학, 정신분석*(개정판) [Art, literature, psychoanalysis (Rev. ed.)] (J.-J. Jeong, Trans.). Paju: The Open Books co. (Original work published 1910).
- Fuller, B. W. (2016). Adorno reading and writing sociology.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19(3), 431–448. doi:10.1177/1368431015623021
- Geczy, A., & Karaminas, V. (2016). *Fashion's double: Representations of fashion in painting, photography and film*. London and New York: Bloomsbury Publishing Plc.
- Han, S.-Y. (2010). *Aesthetic analysis of SalPuri-chum from Plato's point of view*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Harries, K. (1988). *현대미술 그 철학적 의미* [Contemporary art-Its philosophical meaning-] (B.-N. Oh & Y. H. Choi, Trans.). Seoul: Seokwangsa. (Original work published 1968).
- Hed, M. W. (2008, July 24). Fashion film: The red shoes.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marcus_werner_hed_the_red_shoes?autoplay=1
- Heyman, F. (2020, February 25). Fashion film: Ceremonial formality.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ceremonial-formality/fashion-film?autoplay=1>
- Hirano, K. (2018, August 13). Fashion film: UN.A, color.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kenji_hirano_una_color?autoplay=1
- Hong, J.-K. (1999). *라캉과 현대 철학* [Lacan and modern philosophy]. Seoul: Moonji.
- Homer, S. (2006). *라캉 읽기*[Reading Lacan] (S.-Y. Kim, Trnas.). Seoul: EunHaengNaMu Publishing co.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Huh, Y., Chun, J., & Ha, J. S. (2016). A research on the communication characteristics of fashion film-Focused on Chanel, Prada, Kenzo, Alexander Wa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0(2), 315–329. doi:10.5850/JKST.2016.40.2.315
- Hwang, S.-H., Kim, K.-H., & Choi, M.-H. (2013). A study on image of “ugliness” by Carl Rosen Kranz expressed in a character of horror movi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11(3), 10–20. doi:10.35226/kskd.2013.11.3.10
- Hyun, J.-A. (2003). *A study on application of Julia Kristeva's “Abjection” to contemporary architec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 Jeong, H.-k. (2010). 미와 추의 변증법 - 숭고와 코믹 [Dialectic of beauty and ugliness - The sublime and the comic]. *Hesse-Forschung*, 23, 89–110.
- Jin, J. S. (2001). *키치(Kitsch) 미술과 대중문화에 관한 연구*[A study on Kitch art and popular cultur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Jung, M-K. (2014). *키치의 시대, 예술이 답하다*[The age of kitsch, art answers]. Seoul: Samunnaejeok.
- Keller, A. C. (2016, November 2). Finalist fashion film: Asymptote.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awards_16/finalist-fashion-film-asymptote?autoplay=1
- Keller, A. C. (2019, October 17). Shortlist: The rite.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fashion-film-awards-collaboration-harrods/the-rite?autoplay=1>
- Khan, N. (2012). Cutting the fashion body: Why the fashion image is no longer still. *Fashion Theory*, 16(2), 235–249. doi:10.2752/175174112X13274987924177
- Ki, J.-H. (2008). The meaning of play in Schiller's *Über die ästhetische Erziehung des Menschen in einer Reihe von Briefen*. *Journal of the Humanities*, (54), 249–276.
- Kim, E.-J. (2003). 추의 현대적 이해: 슐레겔의 「그리스 문학 연구에 대하여」 [Modern understanding of ugliness: 「On the Study of Greek Literature」 by Schlegel]. *Buechner und Moderne Literatur*, (21), 141–166. doi:10.23039/ndl.2003..21.141
- Kim, J. (2013). Interactive case study on fashion media: Focu-

- sed on Showstudio's fashion projects. *Journal of Fashion Business*, 17(5), 101–119. doi:10.12940/jfb.2013.17.5.101
- Kim, J. H., & Cho, J. K. (2018). A study on the humanoid robot's uncanny image.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9(1), 147–160. doi:10.47294/KSBDA.19.1.11
- Kim J. Y. (2013). Characteristics of Nick Knight's works as a fashion visual mak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4), 101–117. doi:10.7233/jksc.2013.63.4.101
- Kim, K.-S. (2009). *라캉의 질서론과 실재의 텍스트적 재현* [Lacan's theory of order and textual representation of reality]. Paju: Korean Studies Information.
- Kim, M.-S. (2012). 아도르노의 미학에서 추의 변증법: 『미학 이론』의 한 해석 [Dialectic of ugliness in Adorno's aesthetics: An interpretation of 『Theory of Aesthetics』].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Science of Art*, 35, 237–262. doi:10.15727/JASA.35.0.09
- Kim, S.-C. (2008). The aesthetics of ugliness in the work of Karl Rosenkranz.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Science of Art*, 27, 39–60.
- Kim, S.-h. (2021). 독일어권 캐리커처 연구 [German-speaking caricature study]. *Bertolt Brecht und das moderne Theater*, (44), 237–254. doi:10.22981/brecht.2021..44.011
- Kim, S. M., & Kim, Y. K. (2013). Innovations in brand communication based on the spread of digital fashion films - Focusing on fashion shows and digital media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ashion Design*, 13(1), 129–140.
- Kim, Y. Y. (1997). ‘여성적’ 특성 및 성욕에 대한 프로이트의 이론과 독일어권 여성 작가의 (성) 정체성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reud's theory of ‘feminine’ characteristics and sexuality and the problem of (gender) identity of female German-speaking writers]. *Sungshin Humanities Research*, 17, 107–129.
- Kissick, D. (2015). Nick Knight on the future of fashion. *Nick Knight*. Retrieved from <https://www.nickknight.com/press/future-fashion>
- Knight, N. (2008, July 23). Fashion film: Untitled.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political_fashion/nick_knight_untitled?autoplay=1
- Knight, N. (2012, November 9). Editorial gallery: Studs.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tuds/editorial_gallery
- Knight, N. (2015, February 17). Fashion film: Aquelarre #10.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aquelarre/fashion-film-aquelarre-10>
- Knight, N., & Bazaar, R. (2021, January 13). Fashion film: Scale.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scale/fashion-film?autoplay=1>
- Knight, N., & Couceiro, R. (2019, June 30). Fashion film: Tessa.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tessa/film>
- Knight, N., & Hogben, R. (2008, December 12). Fashion film: Make up your mind.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make_up_your_mind/make_up_your_mind?autoplay=1
- Knight, N., & Ku, Y. (2019, June 19). Fashion film: @uglyworldwide.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uglyworldwide/fashion-film-uglyworldwide?autoplay=1>
- Knight, N., Pugh, G., & Ku, Y. (2017, September 15). Fashion film: Gareth Pugh S/S 18.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gareth_pugh_s_s_18/fashion_film
- Kristeva, J. (2001). *공포의 권력* [Fear power] (M. Y. Seo, Trans.). Seoul: Dongmunseon. (Original work published 1980)
- Kulka, T. (1996). *Kitsch and art*. University Park, PA: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 Kwon, H.-S. (2012). 플라톤에 있어서 미메시스와 예술 — 『국가』를 중심으로 [Mimesis and art in Plato — Focusing on 『The State』]. *Mihak - The Korean Journal of Aesthetics*, 69, 1–48.
- Kwon, J., & Yim, E.-H. (2016). Characteristics and categorization of fashion film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4), 128–145. doi:10.7233/jksc.2016.66.4.128
- Lee, C. H., & Lee, J. H. (2020). The beauty of imperfection - A study of Junk Art in Viktor&Rolf's haute couture using Greimas' Semiotic Square, from Spring 2015 to Spring 2020 -. *Journal of Fashion Design*, 20(3), 147–166. doi:10.18652/2020.20.3.9
- Lee, C.-N. (2004). 미-추의 변증과 문화비판 - 아도르노 『미학 이론』의 「추, 미, 기술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Apogetics and cultural criticism of beauty-ugliness - Focusing on 「Category of ugliness, beauty, and technology」 of Adorno 『Theory of Aesthetics』]. *Hesse-Forschung*, 12, 529–552.
- Lee, H. S. (2001). *A study on Freud's concept of subli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Lee, H. S. (2012). A review on aesthetics of Plato.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3(2), 37–53.
- Lee, J.-E. (2019). The philosophical basis of a romantist Friedrich Schlegel - In relation to Kant -. *Hegel-Studien*, 46, 159–183. doi:10.17281/khegel.2019..46.007
- Lee, J. H. (2010). *The materials for ugliness depicted in contemporary fashion -Focusing on the viewpoint of T. Adorno and U. Eco-*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J. K. (2015). *Analysis of consumers' attitudes toward advertisement based on the differences of fashion film typ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 McQueen, A. (2002, September 19). Fashion film: Eat fashion.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mcqueen_eat_fashion

- cts/transformer/eat-fashion-erin-oconnor?autoplay=1
- Nadal, R. (2016, May 10). Fashion film: Edith.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reedom/the_fall_of_the_corset?autoplay=1
- Nam, I.-S. (2008). The origin of Ugliness(non-the aesthetic) in the psychoanalysis and modern art: focusing on Freud and Lacan. *The Journal of Aesthetics and Science of Art*, 27, 159-194.
- O, Y.-J. (2006). The anthropology of a caricature-On the satire and irony in Nam, Jeong-Hyeon's novels.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13), 343-364.
- Oh, B.-N. (2003). *미학강의* [Aesthetics lectur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Oh, J.-h. (2017). Grotesque aesthetics with a focus on animations of Lee, ae-rim director. *Cartoon & Animation Studies*, 47, 81-101. doi:10.7230/KOSCAS.2017.47.081
- Ohr, S. W. (2015). Plato's idea of the Good : Conceptualization, and its implication on political education. *21st century Political Science Review*, 25(1), 1-24. doi:10.17937/tops.25.1.201503.1
- Park, E. K. (2005). *The Goth style as camp cult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Seoul.
- Park, H. (2017). 프리드리히 셸레겔의 『그리스문학 연구』에 관한 소고 - 초기 낭만주의의 고대 그리스문화 수용을 중심으로 [An essay on the study of 『Greek Literature』 by Friedrich Schlegel - Focusing on the acceptance of ancient Greek culture in early Romanticism]. *Buechner und Moderne Literatur*, 49, 71-90. doi:10.24829/JKBS.2017.49.04
- Park, S.-K. (2009). *A study on the recovery of urban spatial communication through an analogy of female body-Through a conceptual extension of Kristeva's semiosphere Chora-*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Incheon.
- Park, S. S. (2004). 아도르노 미학에 있어서 추(das Haßliche)의 문제 [The problem of das Haßliche in Adorno aesthetics]. *Problems in the Art of East and West*, 7, 54-60.
- Park, U. (2018). Re-consideration on the boundary: Re-reading Freud's *Uncanny*. *TRANS-HUMANITIES*, 11(2), 71-102. doi: 10.22901/trans.2018.11.2.71
- Park, W. M., & Bae, S. J. (2012). A study on the aesthetics of ugliness applied into contemporary art and fashion-Focused on Adorno's aesthetic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18(3), 201-214.
- Ra, Y.-K. (2009). 미적 범주로서의 추 [Ugliness as an aesthetic category]. *The Comparative Study of World Literature*, 29, 305-325.
- Rhie, K. H. (2017). The relation of art(literature) and philosophy in Friedrich von Schlegel. *EPOCH AND PHILOSOPHY -A Journal of Philosophical Thought in Korea-*, 28(4), 67-94.
- Roh, Y. D. (2015). The ugliness and the aesthetic of expressionism. *Journal of Basic Design & Art*, 16(1), 155-166.
- Rosenkranz, J. K. F. (2008). *추의 미학* [Aesthetics of ugliness] (K. S. Cho, Trans.). Paju: Nanam. (Original work published 1853)
- Ryu, J.-h. (2014). The uncanny of humanoid robots in *Real Human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5(1), 261-295. doi:10.15818/ihss.2014.15.1.261
- Seo, J.-L., & Jin, K.-O. (2006). The ugliness expressed in online game character's fashion on cyber-spa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6(1), 106-120.
- Shin, J.-h. (2001). 바로크 예술과 에로티시즘 - 장 로렌소 베르니니를 중심으로 - [Baroque art and eroticism - Focusing on Jean Lorenzo Bernini -]. *Journal of European Union Studies*, 8, 171-184.
- SHOWstudio. (2015, December 22). Branded: Bess NYC - Film 1. *YouTub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6Z_dimrHHfo
- SHOWstudio. (2018, December 18). The Fashion Body: Chest by Alice Hawkins. *YouTub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TJ5rgMcM3Bo>
- SHOWstudio. (2020, July 4). Meet the Extreme Beauty Gurus of the Apocalypse Generation. *YouTube*. Retrieved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6O8F8Go7JIM>
- Siniscalchi, G. B. (2015). Thomas Aquinas, nature evil, and 'outside the church, no salvation'. *The Heythrop Journal*, 56(1), 76-86. doi:10.1111/heyj.12145
- Spector, J. J. (1998). *프로이트 예술미학: 정신분석과 예술에 대한 연구* (개정판) [The aesthetics of Freud: A study in psychoanalysis and art (Rev. ed.)] (3rd ed.). (S. Shin, Trans.). Seoul: Pulbit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 Stoppard, L. (2015, December 22). Interview: Bess NYC.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branded/interview_bess_nyc
- Sun, H.-M. (2007). *Aesthetics of ugliness of tattoo make-up in modern fash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 Tatarkiewicz, W. (2005). 타타르키비츠 美學史 1: 고대미학 [Tatarkiwitz aesthetic history 1: Ancient aesthetics] (H. J. Shon, Trans.). Seoul: Misul Munhwa. (Original work published 1970)
- Verheijdem, L., & Stadman, M. (2018, March 2). Fashion film: Ninamounah × Stadman.Lara. *SHOWstudio*. Retrieved from https://www.showstudio.com/projects/fashion_film_submissions/lara_verheijden_ninamounah_x_stadman_lara?aautoplay=1
- Yeou, E. (2014).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metaphysical painting of Giorgio de Chirico and surrealist subconsciousness. *Art Journal*, 15, 71-93.

- Yoo, H.-J. (2010). 두려운 낯설음-프로이트, 호프만, 키틀러 그리고 언캐니 밸리 [The fearful stranger-Freud, Hoffman, Kittler and the uncanny valley]. *Bertolt Brecht und das moderne Theater*, 23, 203-221.
- Yoon, Y. (2013). *Ugliness aesthetics in contemporary fashion - The focus on fashion collection from 2000 to 2012*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 Yun, D.-w. (2016). *The problem of sex and subject in Freud's and Deleuze's theories - as a criticism of Deleuze's difference and repeti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추하다 [Ugly]. (n.d.).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language dictionary]. Retrieved from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25324&sort=asc&searchKeywordTo=3&searchKeyword=%EC%B6%94&fileType=&fileField=&fileUseType=&fileUseContent=&downloadType=Excel